

한국, 미국, 일본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비교

A Comparison of Terminal Values of Home Economics Students among Korea, USA, and Japan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洪恩實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Eun-Sil, Hong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 terminal values of home economics student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the terminal values of them were compared with those of USA and Japan. Through this, it make to explai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inal values among 3 nations. 175 students were adapted as data in Korea. Data of USA and Japan were obtained from Holyoak, Sawai, and Rauniyar(1993).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s, one-way ANOVA, Duncan-test.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inal values among 3 groups.

I. 문제 제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고도의 산업화 국가들을 휩쓸고 있으며, Toffler(1970)는 이 변화의 흐름이 오늘날 여러 가지 제도를 뒤집어 엮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뿌리를 파헤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였다. 그는 변화라는 것은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며 우리 시대에는 변화의 가속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Toffler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 변화를 실감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변화의 가속화 뿐 아니라 삶의 영역

을 공간적으로 전세계로 확장시켰다. 종적(시간적)인 급속화와 횡적(공간적)인 확대로 문화권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의 보편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상호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빈번한 교류시에는 다른 나라와 상이한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이해와 자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국제화 시대, 정보지향 사회로 변화하는 현시대와 일치하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계속되어야 한다.

가치는 관리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소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바람직한 것이며, 생활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사람들이 대안적인 행동방식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가치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가치는 선택이 없이는 보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여 준다(Rice & Tucker, 1986 : 85-88).

관리의 또다른 동기요소인 욕구는 한문화에 한정되지 않지만 가치는 특별한 문화에 연관되어 있으며, 가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Rice & Tucker, 1986 : 84). 관리의 동기요소로서 가치는 또한 문화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 행동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때로는 문화의 규범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가치를 알면 그들이 무엇을 선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 관리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상호교류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이처럼 관리의 여러 동기 요소 중 특히 가치는 비교문화분석이 필요하나, 국내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홍은실·황덕순, 1995) 문화적 비교를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치는 추상적이므로 존재의 궁극적 상태에 대한 이상적인 행동의 모드로 나타나며(Rokeach, 1973), 모

든 사람이 다양한 수준에서 같은 가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가치체계로 조직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이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게 이 두 나라의 의미는 특별하다. 일제 식민 역사의 잔재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언어와 행동양식에 일본 문화가 남아 있으며, 해방 이후 무분별하게 서구 문화가 밀어 닦친 후 지금은 미국 문화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 문화의 부분이 되어 버린 실정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본과 미국은 그들의 문화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인간의 가치는 과거에 동양과 서양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서양인 미국과 동양인 일본의 자료를 동시에 비교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과 일본 아키타대학의 가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Rokeach(1967)의 척도로 궁극적 가치를 조사한 자료(Holyoak & Sawai, Rauniyar, 1993)와 한국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과 가치의 비교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척도와 측정방법으로, 같은 전공 학생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가정학과 학생들의 궁극적 가치를 조사한 후 미국과 일본의 학생을 조사한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 내고 그 이유를 찾아냄으로 궁극적 가치구조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가정학 대학생들이 삶에 있어 무엇을 좋아하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관리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시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과 비교함으로써 가치에서 문화적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인 가정관리학 교육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국제적인 상황에 접할 때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의 개념

Rokeach(1973)에 의하면 가치는 존재의 궁극적 상태(end-state of existence)나 특정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며, 가치 체계는 이러한 가치의 지속적인 조직이므로 가치는 인간 믿음 체계의 중심이며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실제 생활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Kluckhohn은 가치를 "행동의 목표와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관념"이라고 하였다. Schwartz와 Bilsky(1987)는 가치를 특정 상황을 초월하여 행동과 결과의 선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배열되는 바람직한 궁극적 상태(end-state)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개념이나 신념이라고 가치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들 특성은 인간 가치의 표면적인 속성을 묘사해 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치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가치의 개념적 특성을 요약한다면 (1)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재구성된 추상성, (2)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의 특성, (3) 중요한 가치의 체계적 통합성 및 서열성, (4)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Rokeach, 1973; Schwartz와 Bilsky, 1987; 임희섭, 1980 등).

2. 가치의 분류

Rokeach(1967)의 고전적 가치조사는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가치를 '안락한 생활과 자유'와 같은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와 '야망적인 또는 책임감 있는'과 같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로 나누었다. 이들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 간의 구별은 여

러 학자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Rokeach, 1973:7). 궁극적 가치 또는 목적 가치는 기존 가치 체계속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어서 가치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변화될 수 없으며 특정 대상을 초월한다. 반면 도구적 가치 또는 수단 가치는 궁극적 가치에 비해 전체 체계의 변화없이도 부분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Morris(1956)는 가치를 작용적 가치(operational value), 관념적 가치(conceptual value), 객관적 가치(objective value)로 분류하였고, Kluckhohn(1961)은 단언적 가치(asserted value)와 작용적 가치(operating value)로 구분하였는데, 그와 같은 가치들은 각 가치체계에 있어서 그 중심성(centrality)과 가변성(changeability)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Schwartz와 Bilsky(1987)는 Rokeach의 36개의 가치 항목을 가지고 보편적 요구(universal requirements) - 생물학적 요구, 상호작용 요구, 사회적 요구 - 에 기초한 일반적인 유형의 가치이론을 구성하였다. 이들 요구로부터 그들은 8가지 가치의 동기영역¹⁾을 이끌어 냈다. 1987년 연구에서 Schwartz와 Bilsky는 독일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1990년 5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문화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기영역에 있어 각 국가간에 유사성이 나타났다(표 1).

본 연구는 Rokeach의 가치분류 중 궁극적 가치만을 조사할 것이다. 가치는 행동 결과의 선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배열되는 바람직한 것에 관한 개념으로, 해야하는 것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궁극적 가치는 '존재의 궁극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 믿음으로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가치'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 가치 체계 속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특정 상황을 초월한다.

1) 향유(enjoyment), 안전(security), 사회적 권력(social power), 친사회(prosocial), 성취(achievement), 자기지향(self-direction), 제한적 순응(restrictive conformity), 성숙(maturity).

〈표 1〉 동기영역에서 궁극적 가치항목의 위치

가치	예 측	호 주	미 국	홍 콩	스 페인	필란드	독 일	이스라엘
안락한 생활	ENJ	ENJ	ENJ	ENJ	ENJ	ENJ	ENJ	ENJ
신나는 생활	ACH/SD	SD	ACH	ACH	ACH	ACH	SD	ACH
성취감	ACH/SD	ACH	SD	ACH	<u>MAT</u>	<u>ENJ</u>	ACH	SD
평화로운 세계	PS/SEC	PS(sec)	PS	SEC	PS	PS(sec)	PS	SEC(ps)
아름다운 세계	MAT	MAT	MAT	MAT	MAT	<u>PS</u>	MAT	MAT
평 등	PS	PS	PS	PS	PS	PS	PS	PS
가족의 안전	SEC	SEC	SEC	SEC	SEC	SEC	SEC	SEC
자 유	SD/SEC	SD	SEC	<u>ACH</u>	<u>MAT</u>	SD	SD	SEC
행 복	ENJ	ENJ	ENJ	ENJ	ENJ	ENJ	ENJ	ENJ
내적 조화	SEC/MAT	SEC	SEC	SEC	MAT	MAT	MAT	SEC(mat)
성숙한 사랑	MAT	MAT	MAT	<u>SEC</u>	MAT	MAT	MAT	MAT
국가 안보	SEC	<u>RC</u>	SEC	SEC	<u>RC</u>	SEC	SEC	SEC
즐거움	ENJ	ENJ	ENJ	ENJ	ENJ	ENJ	ENJ	ENJ
구 원	PS/SEC	SEC(ps)	PS	PS	PS	PS	PS	PS
자아존중	MAT/SD	<u>ACH</u>	MAT	SD(mat)	MAT	MAT	MAT	SD
사회적 인정	ACH	ACH	ACH	ACH	ACH	ACH	ACH	ACH
진정한 우정	PS/SEC	SEC	PS	SEC	PS	<u>PS</u>	PS	<u>MAT</u>
지 혜	MAT	MAT	MAT	MAT	MAT	MAT	MAT	MAT

ENJ=향유 ACH=성취 SD=자기지향 MAT=성숙 PS=친사회 SEC=안전 RC=제한적순응

참고 : 밑줄친 것은 예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임. 괄호안의 소문자는 그 영역과 뚜렷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Source : Schwartz & Bilsky(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881.

3. 한국, 미국, 일본인의 가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는 변화하며, 일정한 시점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가치를 제외하고는 가치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려면 시대별로,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 등의 특정 변인별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조사한 몇 연구를 가지고 중심적인 전통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전반적인 가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한 동양적 가치체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동양적 자

然觀은 자연의 정복과 개척보다는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가 강조되어, 자연과의 조화는 동양적 자연주의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이 높이 평가되는 반면 자연에의 순응은 숙명론적인 가치관을 낳게 하였다. 또한 동양에서의 전통적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神觀이나 원죄사상이 없는 대신 도덕력에 의한 인간의 완성이 강조되는 인본주의, 즉 정신적 가치 또는 인간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충렬, 1977: 150). 임희섭(1980)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제로 권위주의, 집합주의, 인본주의를 꼽았다. 인간관계와 사회윤리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는 철저히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로서 인식되고 조직되어진 것으로 권위주의 가치지향이 강하다. 집합주의는 집합체와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개인과의 관계에서 개

인보다는 집합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가치지향인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집합주의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이라는 점이다. 인본주의는 앞의 동양적 인간관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물질주의와는 달리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해방을 강조하는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와는 다른 인본주의를 말한다.

1979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권위주의-평등주의, 집합주의-개인주의, 인간주의-물질주의의 3차원으로 가치조사를 한 연구(임희섭, 1980)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서열성과 위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생들간에도 상당히 전통적 권위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권위주의적이었으며, 1학년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며, 2-3학년에 급격하게 평등주의적으로 변화하다가 4학년이 되면서 다시 권위주의적 지향이 증가하였다. 집합주의-개인주의의 가치차원에서는 대학생들의 가치지향이 이미 전통적 집합주의에서 떨어져 자아실현을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가치 지향의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개인주의적이었으며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1학년보다 더 개인주의적이었다. 인간주의-물질주의의 가치차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인간주의 지향이 약간 더 높았다.

1989년 서울, 광주, 목포의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한 연구(김경신, 1989)에서는 가치지향의 차원을 현실성-관념성, 수동성-능동성, 권위성-민주성, 개인지향-집단지향 성향으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 대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집단지향, 권위성, 현실성, 수동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수동성, 현실성, 개인지향, 민주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직업과 교육에서 지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관념성향보다는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실성향을 보이며, 교육이나 직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운동에 의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수동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집단 즉 가족이나 사회, 학

교 등에 협조 감정이 강하고 타인과의 유대의식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권력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복종성을 강조하거나 성차를 인식하는 권위적 성향을 보이고, 직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집단에 대한 불일치성이 강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 개인지향적 성향을 보이며 권리, 의무 등에서의 모든 사람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민주성향의 가치관을 나타내었다.

전국적인 표본으로부터 가치를 연구한 Rokeach (1967)는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누어 피험자에게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순서를 정하게 함으로 미국인의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궁극적 가치에서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순위의 가치항목은 평화로운 세계이었고, 가족의 안전, 자유, 행복, 자아존중, 지혜 역시 남녀 모두 높은 가치를 보였다.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인 것은 신나는 생활이었으며, 즐거움, 사회적 인정, 아름다운 세계, 성숙한 사랑도 남녀 모두 낮은 가치를 보였다. 남녀 간의 차이가 나는 가치로는 안락한 생활과 구원을 들 수 있는데, 안락한 생활의 경우 남자는 4위이나 여자는 13위이며, 구원의 경우 여자는 4위이나 남자는 12위였다. 그밖에 남녀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성취감, 지혜, 평등, 국가안보, 진정한 우정, 내적 조화는 中位の 가치였다.

일본 문화의 요소들은 개인과 가족의 가치를 크게 반영해 주는 것으로, Kister(1990)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집단윤리 : 일본인은 강한 집단윤리를 지니는데, '튀어나온 못은 사정없이 쳐야 한다'는 일본 속담이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것은 '빼겨거리는 바퀴는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미국 속담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개인이 집단에게 신 빛을 갚기에 끝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일본에서 정체성, 사회적 책임, 도덕성은 개인보다는 오히려 집단이 결정할 일이다. 반면 미국은 개인적 발달과 성취를 강조한다. (2) 간접적인 언어 표현 : 서구인들은 의사소통시 직접적이고 개방적, 정직하게 자신을 자랑하나, 일본인은 모호하게 한다. 일본인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 하여 대항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말은 피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자연의 조화를 깨는 일이다. (3) 여성의 역할 : 자녀양육과 가족문제와 관련된 결정에서 여성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일본은 가부장적 사회이다. 여성의 대학진학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고, 대부분 전통적으로 여성영역의 전공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남성영역의 전공을 여성들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 (4) 노동윤리 : 대부분의 일본인은 오랜 노동시간을 갖는다.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없으며 일을 마쳐야 집에 간다. 비록 오랜 시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작업 중 누가 방문하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논다고들 한다. 미국인들은 일과 놀이를 구분한다. (5) 美學 : 서구 세계는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이 아름다움이다. 동양에서는 반대이다. 일본인은 단순성, 조화, 자연에 가치를 둔다.

Holyoak와 Sawai, Rauniyar(1993)는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 가정학과 학생 63명과 일본 아키타 대학 가정학과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궁극적 가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국가안보는 두 나라 학생 모두 낮은 가치를 보여 개인적인 가치가 더 우세함이 나타났다. 18개 가치항목 중 8개의 가치(진정한 우정, 성취감, 안락한 생활, 자유, 평화로운 세계, 지혜, 평등, 사회적 인정)가 유사하였으며, 나머지 10개의 가치는 차이가 있었다. 아키타 대학생은 내적조화를 가장 높게 매긴 반면 오레곤 대학생은 행복을 가장 높게 매겼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신나는 생활, 자아존중, 가족의 안전, 즐거움으로 아키타 대학생은 신나는 생활과 즐거움을 상위에 둔 반면 오레곤 대학생은 하위에 두었고, 자아존중과 가족의 안전을 아키타 대학생 보다 더 높게 순위 매겼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연구자들은 (1) 중등교육의 학교경영에서의 차이 : 일본에서의 학교 규율이 미국에 비해 더 엄격함, (2) 가족관계에서의 차이 : 미국은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으며, 일본인은 가족을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재혼을 안함, (3) 가족과 사회에 있어 대학생의

지위에서 차이 : 일본에서 대학생은 아이들로 여겨지며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산다. (4) 종교적 영향의 차이로 보고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한국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위계는 어떠한가?
- 2)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한국, 미국, 일본의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한국자료는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에 재학중인 1학년~4학년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1996년 12월 초 각 학년의 전공필수 교과목 강의시간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스스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176명이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분석에는 175부가 사용되었다. 미국과 일본 자료는 Holyoak 등(1993)이 미국의 오레곤 주립대학 가정학과 학생과 일본 아키타 대학 가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궁극적 가치조사를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오레곤 주립대학의 경우 가정학과 학생은 800명이며, 이들 중 1992년 봄학기 자원관리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남학생과 24세 이상을 제외시킨 최종 6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아키타 대학은 같은 시기의 가정학과 학생 전원 79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크게 가치를 묻는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가족환경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는 Rokeach(1967)의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항목을 사용하였으며, Rokeach와 마

찬가지로 18개 항목의 가치를 제시하여 읽게 한 후 피험자에게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 까지 순서를 정하게 했다. 이로써 1위부터 18위 까지 궁극적 가치의 위계적 순서가 정해진다. 각 항목의 순위가 점수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그 항목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가치측정 척도와 측정방법이 동일하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PC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빈도와 백분율 등의 산술통계와 변수들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GLM을 이용한 분산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각 변수별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와 같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오레곤 주립대학의 학생은 절반 가량(49%)이 3학년이고, 29%가 2학년, 22%가 4학년이며 1학년은 한 명도 없었다. 아키타 대학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1학년 30%, 2학년 24%, 3학년 24%, 4학년 22%).

IV. 결과 및 해석

1. 한국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

한국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의 순위는 (표 3)과 같다. 가장 높은 순위의 가치는 행복이며, 그 다음은 가족의 안전과 자아존중이다. 자유, 지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연 령	18세이하	21(12.0)	학 년	1 학년	48(27.4)
	19 세	47(26.9)		2 학년	43(24.6)
	20 세	43(24.6)		3 학년	43(24.6)
	21 세	38(21.7)		4 학년	41(23.4)
	22세이상	26(14.9)		소 계	175(100)
	소 계	175(100)	모 의 직 업	생산직	12(7.0)
부 의 직 업	생산직	16(9.5)		판매,서비스	26(15.2)
	판매,서비스	37(21.9)		사무, 전문기술	12(7.0)
	사무직	45(26.6)		관리직	7(4.1)
	전문기술직	30(17.8)		주 부	114(66.7)
	관리, 전문직	31(18.3)		소 계	171(100)
	없 음	10(5.9)	모 의 교 육	중졸 이하	57(33.5)
소 계	169(100)	고졸 이하		92(54.1)	
부 의 교 육	중졸 이하	23(13.5)		대학 이상	21(12.4)
	고졸 이하	79(46.5)	소 계	170(100)	
	대학 이상	68(40.0)	가 계 소 득	200만원미만	33(22.2)
부모와 동거여부	함께	132(76.3)		200 - 299	56(37.7)
	떨어져	41(23.7)		300 - 399	30(20.2)
				400만원이상	29(19.9)
소 계	148(100)				

*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성취감도 각각 4-6위로 높은 가치 순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순위의 가치는 국가 안보이며, 구원과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도 낮은 가치로 나타났다.

행복과 가족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꼽은 것은 같은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홍은실, 1996)²⁾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연령과 상관없이 삶에서 '행복'과 '가족의 안전'을 매우 중요한 목적가치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주의가 우세하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옥선화, 1989; 홍은실, 1996 등)를 통해 입증된바 있으며, 급변하는 현 시대를 사는 대학생 집단에서도 또다시 지지되었다. 지혜 또한 대학생과 주부 모두 상위 가치로 나왔으며, 국가안보, 아름다운 세계, 신나는 생활은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가치를 보였다.

궁극적 가치를 보통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누는데³⁾ 특이할만한 점은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평등이 최하위 6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부들도 국가안보와 아름다운 세계에 낮은 가치 점수를 주었으나 평화로운 세계와 평등은 6위, 7위로 상위 가치에 해당한다(홍은실, 1996). 이는 젊은이가 사회적인 가치보다 개인적인 가치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부들의 하위 가치에 해당하는 자아존중, 자유, 성취감, 내적 조화, 성숙한 사랑이 대학생들은 상위 가치로 나타났다. 임희섭의 연구(1980)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치가 이미 전통적 집합주의에서 떨어져 자아실현을 내세우는 가치지향의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전반적인 가치구조를 Schwartz와 Bilsky(1990)의 가치의 동기영역 분류에 비추어 볼때, 대학생들은 대체로 자기지향영역과 성숙영역(자아존중, 자유, 성취감, 지혜, 성숙한 사랑, 내적조화)의 가치

〈표 3〉 가정학 전공 대학生の 궁극적 가치 순위

순 위	궁극적 가치항목 ()안은 부가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1	행 복(만족스러움)	4.47	3.97
2	가족의 안전(사랑하는 사람을 돌봄)	5.15	4.21
3	자아존중	5.66	3.95
4	자 유(독립, 자유로운 선택)	7.71	4.24
5	지 혜(인생에 대한 성숙한 이해)	7.74	4.04
6	성취감(지속적인 공헌)	7.82	4.37
7	성숙한 사랑(성적, 정신적 친밀감)	8.06	4.50
8	내적 조화(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	8.19	4.46
9	즐거움(유풀하고 여유있는 생활)	8.82	4.23
10	안락한 생활(부유한 생활)	8.97	4.66
11	사회적 인정(존경과 칭찬)	9.21	4.04
12	진정한 우정(친밀한 우애)	9.46	3.81
13	평 등(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	11.47	3.60
14	신나는 생활(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11.61	4.22
15	아름다운세계(자연의 미와 예술)	13.07	3.42
16	평화로운세계(전쟁과 충돌이 없는)	13.11	4.15
17	구 원(영원한 삶)	14.20	5.63
18	국가 안보(공격으로부터 보호)	16.28	2.66

를 중요시하며, 친사회영역과 안전영역(진정한 우정, 평등, 평화로운 세계, 구원, 국가안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지향 가치가 낮다는 연구(홍은실, 1996)와 일치한다. 가족의 안전도 Schwartz와 Bilsky(1990)가 안전영역으로 분류한 가치이나 다른 안전영역 가치들과 상반되게 높은 가치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특유의 가치경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안전이 1위, 행복이 2위였다.

3) '내적 조화'나 '성숙한 사랑', '즐거움' 과 같은 가치는 개인적인 궁극적 가치로, 반면 '국가 안보'나 '아름다운 세계'와 같은 가치는 사회적으로 언급된다(Rokeach, 1973).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학 전공 대학생들은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과 가족의 안전이며, 사회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그리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지지하는 안전과 친사회 영역의 가치보다 사람들의 유일한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고 그것에 편안함을 표현하는 성숙과 자기지향 영역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

2. 학년별 궁극적 가치

학년별 궁극적 가치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LM을 이용한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가족의 안전과 아름다운 세계, 진정한 우정, 지혜, 평등의 5가지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학년별 궁극적 가치의 평균과 차이 검증

	가족의 안전		아름다운 세계		진정한 우정		지혜		평등	
	F		F		F		F		F	
학년	M	D	M	D	M	D	M	D	M	D
1	3.73	A	13.90	B	8.69	A	8.40	B	10.90	A
2	5.35	AB	13.47	AB	8.00	A	8.35	B	10.47	A
3	5.54	AB	12.74	AB	10.74	B	6.21	A	12.61	B
4	6.22	B	12.02	A	10.56	B	7.93	B	12.00	AB

*p<.05 **p<.01 ***p<.001

1 학년이 가족의 안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둔다. 아름다운 세계는 가족의 안전과 상반되게 1 학년보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두어 4 학년이 더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정한 우정은 1, 2 학년이 3, 4 학년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평등도 1, 2 학년이 3, 4 학년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지혜는 3 학년이 다른 학년과 차이를 보여 특히 1, 2 학년보다 3 학년이 지혜를 높은 가치로 응답하였다. 저학년일수록 '가족의 안전'과 '진정

한 우정', '평등'에 더 높은 가치를 보이고 고학년일수록 '아름다운 세계'와 '지혜'에 더 높은 가치를 보인다. 이는 Schwartz와 Bilsky(1990)의 8개 가치의 동기영역에 비추어 볼때, 저학년은 안전영역과 친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가치를 강조함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치로 표현하였으며, 고학년들은 성숙하여 짐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를 지향하는 가치가 우세하다. 지혜와 아름다운 세계는 성숙영역으로 Schwartz와 Bilsky는 이들 성숙영역의 가치를 Maslow의 자아실현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Holyoak 등(1993)의 결과에서도 미국의 학생이 평등은 저학년일수록, 아름다운 세계는 고학년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일본 학생의 경우 1, 2 학년이 3, 4 학년보다 지혜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것은 본 조사와 상반된 결과이다.

3. 한국, 미국, 일본 대학생의 가치 비교

한국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순위와 Holyoak 등(1993)의 미국과 일본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가치 순위 조사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각 국가 대학생의 가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한국과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두 나라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 순위에서 놀랍게도 상위 1위 ~ 3위 까지가 일치하였다. 모두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고 그 다음이 가족의 안전, 자아 존중 순이었다. 국가안보는 평균점수의 차이가 약간 나지만 두나라 학생 모두 가장 낮은 순위의 가치였으며, 신나는 생활도 똑같이 14위이다. 그 밖에 비슷한 가치로 안락한 생활은 모두 평균 점수 9.0이며 평등은 한국이 11.5, 미국이 11.0으로 이들 가치는 두 나라 학생 모두에게서 중위의 가치로 나타났다.

자유와 내적 조화의 경우 미국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의 가치이나 한국에서는 차이가 나서 자유는 전남대 학생이, 내적 조화는 오레곤대 학생이 더 높은 가치로 나타났다.

〈표 5〉 전남대학교와 오레곤대학교, 아키타대학교 학생의 궁극적 가치순위

순위	전남대학교(평균)	오레곤대학교(평균)	아키타대학교(평균)
1.	행 복 (4.5)	행 복 (4.1)	내적조화 (6.1)
2.	가족의 안전 (5.2)	가족의 안전 (5.2)	행 복 (6.2)
3.	자아 존중 (5.7)	자아 존중 (5.2)	진정한 우정 (6.2)
4.	자 유 (7.7)	진정한 우정 (6.0)	신나는 생활 (6.4)
5.	지 혜 (7.7)	성숙한 사랑 (7.2)	즐거움 (7.8)
6.	성취감 (7.8)	내적 조화 (8.0)	가족의 안전 (8.4)
7.	성숙한 사랑 (8.1)	자 유 (8.0)	성취감 (8.6)
8.	내적 조화 (8.2)	성취감 (8.8)	성숙한 사랑 (9.0)
9.	즐거움 (8.8)	안락한 생활 (9.0)	안락한 생활 (9.0)
10.	안락한 생활 (9.0)	지 혜 (10.7)	자 유 (9.1)
11.	사회적 인정 (9.2)	즐거움 (10.8)	자아 존중 (9.5)
12.	진정한 우정 (9.5)	평 등 (11.0)	평화로운세계(9.8)
13.	평 등 (11.5)	평화로운세계(11.2)	지 혜 (10.7)
14.	신나는 생활 (11.6)	신나는 생활 (11.3)	아름다운세계(11.1)
15.	아름다운세계(13.1)	구 원 (12.7)	평 등 (11.4)
16.	평화로운세계(13.1)	사회적 인정 (13.4)	국가 안보 (11.8)
17.	구 원 (14.2)	아름다운세계(14.1)	사회적 인정 (14.2)
18.	국가 안보 (16.3)	국가 안보 (14.5)	구 원 (15.0)

많은 차이가 나는 가치는 사회적 인정과 진정한 우정, 지혜이며, 사회적 인정과 지혜는 전남대 학생(각각 9.2, 7.7)이 오레곤대 학생(각각 13.3, 10.7)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보였다. 진정한 우정은 오레곤대 학생(6.0)이 전남대 학생(9.5)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보였다. 성취감, 즐거움, 아름다운 세계는 전남대 학생이, 성숙한 사랑, 평화로운 세계, 구원은 오레곤대 학생이 더 높은 가치로 보였다.

2)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순위가 일치하는 가치항목은 없으며, 비슷한 가치로는 안락한 생활과 평등, 성취감, 구원, 성숙한 사랑이 있다. 두 나라 학생 모두 성취감과 성숙한 사랑, 안락한 생활은 중위의 가치로, 평등과 구원은 하위의 가치로 나타났다. 행복과 아름다운 세계는 약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두 나라 학생 모두 행복은 상위의 가치로 아름다운 세계는 하위의 가치

로 평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내적조화(6.1)와 진정한 우정(6.2), 신나는 생활(6.4)은 상위의 가치인데 비해 한국 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이며, 특히 신나는 생활과 진정한 우정은 그 차이가 크다. 반면 한국 학생에게 가족의 안전과 자아존중, 자유, 지혜는 상위의 가치인데 비해 일본 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의 가치였다. 그리고 사회적 인정은 한국 학생에게서, 즐거움과 평화로운 세계, 국가 안보는 일본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나타났다.

3) 한국, 미국, 일본간의 비교

세 국가의 궁극적 가치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개인적 가치(행복, 내적 조화, 성숙한 사랑...)가 사회적 가치(국가 안보,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평등...)보다 높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가 개인보다는 집합체에 더 비중을 두는 집합주의이

4) 두 가치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0.01이다.

며(임희섭, 1980), 일본인이 강한 집단윤리를 갖고 있을지라도(Kister, 1990), 젊은이들의 가치는 개인적 발달과 성취를 강조하는 서구의 가치를 지향하여 세 나라 모두 개인주의적 가치가 우세하다.

전남대 학생의 가치구조는 아키타대 학생보다 오레곤대 학생의 가치와 더 유사하다. 특히 가족의 안전과 자아존중은 한국과 미국이 일본보다 상위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신나는 생활과 즐거움은 일본 학생은 상위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차이에 관해 Holyoak 등(1993)은 가족의 안전의 경우 일본은 이혼율이 낮고 가족은 영원히 지속될 개념이므로 가족에 더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혼율, 재혼율이 높고, 거대한 땅 덩어리로 인해 가족원의 떨어져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으며, 신나는 생활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이 성장기에 보다 틀에 박힌 생활을 했기 때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1년에 미국 학생은 180일 학교에 가는데 비해 일본 학생은 학교에 240일 가며, 일본이 학교 규율도 매우 엄격하고 90%이상 교복을 입고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서, 일본 대학생은 대학시기를 얼마간의 휴식의 시기로 보고 그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포기해 왔던 일을 하는 시기로 보기 때문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의 가족관계나 학교교육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가치가 나타남은 위의 해석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생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에서 처럼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이동으로 인한 이거(離居)에 의해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주의가 우세하기 때문(옥선화, 1989)인 것이다. 또한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규율과 정칙이 일본과 같이 엄격하고 대학입시로 억압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한국 대학생이 신나는 생활이나 즐거움에 대한 가치가 일본 학생에 비해 낮은 것은 힘들여 대학에 왔으나 곧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긴장, 특히 여자대학생의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원에 대한 가치는 전남대 학생과 아키타대 학생이 오레곤대 학생보다 더 낮았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종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부는 18개의 Rokeach의 궁극적 가치 항목 중 구원을 10번째로 중요한 가치로 응답하였으나(홍은실, 1996), 미국의 여자는 4위였다(Rokeach, 1967).

오레곤대 학생과 아키타대 학생에 비해 전남대 학생에게서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나라에 비해 진정한 우정과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가 낮은 점과 지혜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전남대 학생의 경우 진정한 우정이 저학년대에 비해 고학년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p < .001$)으로 낮았는데(표 4),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이나 일본 학생에 비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긴장이크기 때문에 친구와의 친밀한 우애보다도 존경과 칭찬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궁극적 가치구조는 한국인의 특유의 전통적 가치인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지향을 보이면서도, 자아존중, 자유, 성취감과 같은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국가안보나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낮았다. 또한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지지하는 안전과 친사회 영역의 가치보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성숙과 자기지향 영역의 가치가 더 높았다.

친사회적 가치가 낮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지향 가치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홍은실, 1996)를 지지하며, 또한 친사회영역에 속하는 진정한 우정과 평등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이 친사회적 가치들을 강화시

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세 국가의 궁극적 가치의 유사점은 행복, 내적 조화, 성숙한 사랑과 같은 개인적 가치가 국가 안보,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Holyoak 등(1993)이 지적했듯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풍족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는 물질적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도 생활조건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증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록 미국에서도 가족의 안전이 높은 가치로 나타났지만, 그 가치를 나타내게 하는 근거에 깔린 이유는 두 국가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의 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의 안전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한국은 가족을 어느 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중심에서 기인한 가치인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드러난 가치일지라도 가치형성의 동기가 다를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는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낮은 가치인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지만,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더욱 낮은 것과, 자유와 사회적 인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그리고 비슷한 중고교시절을 보냈음에도 일본 학생에 비해 신나는 생활과 즐거움의 가치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취업에 대한 압박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다섯째, 한국 대학생의 가치구조는 일본보다 미국 대학생의 가치구조와 더 유사하다. 일본은 같은 동양이고 서구보다 가족관계나 학교 교육체제가 비슷하며,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양인 미국보다 유사성이 더 적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나 인종보다는 상호교류의 양과 질에 따라 가치의 유사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젊은이는 한국영화보다 수많은 미국영화를 보고 자랐으며, 비록 중고등 교육체제는 일본과 유사하나 대학의 학문

은, 특히 가정관리학은 일본에 비해 미국의 이론체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현사회에서 국제적인 가정관리학 교육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국제적인 상황에 접할 때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 자료만을 직접 수집하였고, 미국, 일본은 간접자료로서 원자료(raw data)가 없어 3 국가의 가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한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셋째, Rokeach 가치 척도의 측정방법이 갖고 있는 제한점으로 사람에게 따라서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할지라도 엄격한 위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며, 같은 수준의 여러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를 무시한 점이다. 또한 개별 응답자가 평가한 가치 순위간이 동간(interval)이 아님에도 동간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첫째, 전국적으로 표집대상을 확대시켜 가치조사를 할 것이며, 간접자료를 사용할 경우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 세 나라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치만이 아니라 가족자원 관리행동과의 관계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Rokeach의 척도를 사용할 경우 제한점을 개선한 Schwarz와 Bilsky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가치의 다른 차원에 대한 조사와 가치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5) Rokeach의 순위체계의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18개 항목을 자신의 삶에 있어 지침원리로서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 순서로 나열하게 한 다음, 인접한 가치와 비교하여 위 순위의 가치가 바로 아래 순위의 가치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7점 척도로 나타내게 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였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1989).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김충렬(1977). 동양사상에 있어서의 가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編 <인문과학과 가치> 서울 : 단성사.
- 3) 옥선화(1989).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임희섭(1980). 가치지향의 변화의 적응.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185-2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5) 홍은실·황덕순(1995). 가정관리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의 분석 : Schlater와 Sontag의 2차원 가치 측정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24-132.
- 6) 홍은실(1996). 도시주부의 가치와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Holyoak, A., Sawai, S., & Rauniyar, K.(1993). An examination of terminal values of home economics students : a comparison from USA and Japan. *Cross Cultural Approaches to Home Management*, 280-294.
- 8) Kister, J.(1990). Cultural and global perspectives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K. Williams/D. L. West/E.C.Murray(Eds.) :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Home economics and the global community*(pp.175-186). Mission Hills, CA:Glencoe/McGraw-Hill.
- 9) Kluckhohn, F. & Strodtbeck, F.(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Row, Peterson and Company.
- 10)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Sixth E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ew York.
- 11) Rokeach, M.(1967). *Value Survey*. Sunnyvale, CA: Halgren Tests.
- 12)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 Free Press.
- 13) Schwartz, S.H., & Bilsky, W.(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14) Schwartz, S.H., & Bilsky, W.(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15) Toffler, Alvin(1970). *Future shock*. 이규행 역 (1989). 미래쇼크, 한국경제신문사.